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72호 [루게 제25315호] 주제 105 (2016)년 6월 20일 (월요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돐을 맞으며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았다.

조선로동당을 수명의 당,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펼쳐주시어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찬없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외의 정에 넘친 군중들의 물결이 만수대만덕으로 풀없이 흘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앞에 놓여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학교 등의 명의



로빈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 꽃바구니들의 덩어리는 《위대한 우리와 함께 케친다》 등의 글만이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살아계셨다. 군중들은 비범한 사상리론활동의 성스러운 력사를 창조하시고 과 정력적인 명도로 조선로동당 품없이 강화발전시키시어

주체조선의 역년기들을 다져 주신 절세위인들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만수대장사찰을 비롯한 수도의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에 인민군부대, 기관, 기업소, 대학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습니다.

각지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교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해 총대진할 드높은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새로운 만리마속도로 비약하며 힘차게 전진

200일전투장에서 보내온 소식 대상설비생산에서 련일 혁신

통성 기계 련합 기업소에서

나라의 골지의 대상설비생산기지인 통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창조와 혁신의 기상이 세차게 나타내지고있다.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통성의 로동자들은 전력공업, 금속공업, 채취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중요부문에 보내준 대상설비생산에서 편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자강력적 인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련합기업소의 인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제기되는 문제들을 지체의 힘과 기술로 풀어나가면서 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의, 대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걸음이 떨

쳐나선 련합기업소의 인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만리마속도로 제기된 일군들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고 엄강검점과 순회검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2호발전소의 인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은 발전설비들에 정동하기 위한 기술학습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 설비들의 만가통을 보장하고있다.

인제의 수력구조물관리부를 맡은 로동자들도 전력생산을 함께 책임지는 주인다운 책임에서 인제의 수력구조물, 발전설비들의 점검보수를 책임적으로 하여 전력생산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1호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이 전력생산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발전소 인군들은 기술자들의 열의와 적극적인 앙양령의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지사업을 펴고있고있다.

도당위원회와 기계공업성의 지도방조밑에 전진한, 지철공동무를 비롯한 당, 행정, 기술 인군들은 총정의 70일전투로 비상히 앙양된 투쟁기세를 더욱 고조시키며 만리마속도로 비상이 박차를 가하여 생산에서 계속 혁신이 일어나도록 투쟁의 심장에 불을 지피고있다. 한편, 자체보장을 앞세우고 교차생산조직과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면서 대상설비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동무는 만리마속을 찾았다. 동무는 오늘전투계획을 수행하였는가? 누구나 심장에 손을 대고 이만 마음을 제기하면서 오늘 야가하고있다.

총정의 200일전투가 힘차게 벌어지는 요즘 통성의 인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대담하게 작전하고 실천하며 어떠한 어려움도 생산과제에 막히

지, 장비들을 창안도입하고 새로운 기술혁신안을 적극 받아들여 자체소비를 줄이고 시간을 절약하면서 각종 대상설비소재를 앞질러가며 생산보장하고있다.

1기제작장과 4기제작장, 제관1직장의 로동자들도 새로운 기술혁신안,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원가를 낮추면서 대상설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인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무거운 수심이나 되는 대의, 소결로대차소재 생산과 같은 여러 직장에서라도 현대적인 각종 지열설비와 압축기, 대양열설비를 비롯한 새로운 기계설비들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만들어내고있다. 또한 강속기대치의 대형분쇄기속가공에 대담한 기술혁신안을 창안도입하여 종전보다 전기와 자재를 훨씬 절약하면서도 계획된 생산기율과 질을 철저히 보장하고있다.

선군투쟁공장의 인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합리적인

려명거리건설장에 더 많은 철강재를

활해 제철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은 경제강국을 떠받치는 받침돌이며 금속,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황철의 로동조합이 렬명거리건설장에 더 많은 철강재를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당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마에 새겨안은 황철의 로동조합은 70일전투때의 그 정신, 그 기개로 철강재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200일전투의 기본목표를 렬명거리건설장에 더 많은 철강재를 생산보장하는것으로 정하고 주요전투방향에 능력이 있는 인군들을 파견하여 화선식정지사업을 힘있게 벌이도록 조직정지사업을 펴고있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참모부에서는 인군들과 로동자들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에 맞게 설비와 장

비, 압연강재생산계획을 70일전투때보다 더 높이 정하고 그 수행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민첩하게 해나가고있다. 특히 주체철강생산체계를 더욱 완비하여 선철생산량을 높이고 조고전력기계의 가동률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하여 장철생산량을 늘리고 압연소재를 충분히 확보하는데 힘을 집중하고있다.

주체철강산을 맡고있는 용광로직장의 인군들과 로동자들은 용해공정에서 로동조합을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산소량을 원만히 보장하면서 주체철강산을 높여가고있다. 로제 작업의 용해공정은 생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풀어나가며 용해시간을 단축하면서 최후를 종전보다 훨씬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강철직장의 용해공정이 혁신의 불길에 새겨져 지펴올리며 로제대용 강철생산과제를 어렵지 않게 수행하고있다. 조고전력기계의 로동자들은 강철

생산의 주타격방향을 맞이나서 제시된 책임감을 안고 강철 생산을 부쩍 높이고있다.

청년선제직장의 인군들과 로동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강마당정신으로 환강생산에서 편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환강생산의 선철공정을 맡은 가열작업반원들은 가열로의 압력과 평가수준을 책임적으로 하여 잘 가열된 환강소재를 제때에 다음공정에 넘겨주었다. 압연작업반원들도 로제대용 강철을 높은 질의 강철을 생산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이고있다.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을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황철로동조합의 힘찬 투쟁으로 렬명거리건설장에 보내준 철강재생산량은 계속 확대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전력증산투쟁을 힘있게 원산군민발전소에서

새로 일떠선 원산군민발전소에서 대고전투장들에 더 많은 전력을 보내주기 위한 증산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고르고있다.

총정의 200일전투에 들어간 첫날부터 발전소의 인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며 매일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공업부문에서 발전소들의 불빛관 선산공정표시설비를 정비보장하고 기술개선을 다그쳐 발전설비의 효율을 높이고 만가통, 만부하를 보장하며 전력생산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발전소당조직에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인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의 앙양령의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지사업을 펴고있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인군들은 물관리를 잘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수력구조물과 발전설비들의 관리에 깊은 관심을 돌려 한방울의 물이라도 허실없이 전력생산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하고있다.

인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은 첫 운영을 시작함에 맞게 발전설비들의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설비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데 힘을 쏟고있다. 설비들의 만가통을 보장할수 있게 여러가지 가지있는 기술혁신안을 적극 받아들이고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사업에 힘을 넣어 총정의 200일전투시작부터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1호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이 전력생산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발전소 인군들은 기술자들의 열의와 적극적인 앙양령의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지사업을 펴고있고있다.

로 하면서 전력생산을 높이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발전설비운영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고 엄강검점과 순회검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2호발전소의 인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은 발전설비들에 정동하기 위한 기술학습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 설비들의 만가통을 보장하고있다.

인제의 수력구조물관리부를 맡은 로동자들도 전력생산을 함께 책임지는 주인다운 책임에서 인제의 수력구조물, 발전설비들의 점검보수를 책임적으로 하여 전력생산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원산군민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그대로 총정의 200일전투로 불꽃은 대고전투장들의 중심의 동음이 되고 집집의 창가마다에 행복의 불빛으로 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빈틈없이 활해 남도에

황해남도에서 한포기의 곡식도 피해를 입지 않게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농작물비판을 잘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무슨 일이나 해내고야말겠다는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단강불여야 하며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보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황해남도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농사를 잘 짓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압록강을 넘을 때의 대담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뜻을 받들고 도에서는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세우기 위한 사업에 역량을 총동원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세우는것은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용해 압록강을 넘이기 위한 중요한 문제라는 무거운 각오를 가지고 모든 인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적극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지사업을 벌이

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선전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여 화선식정지사업과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이는데 장마철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전투장비마대를 혁신의 불길에 새겨져 타고 오르도록 하고있다.

도의 책임인군들이 불꽃은 힘동맹을 맺어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강화한, 배수로, 배수양수장들의 실태를 따져서로 해장악하고 현지에서 장마철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토론하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정리위원회에서는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2개소에 24km의 예안방조제공사와 69개소에 125km의 장하원정리공사를 비롯하여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들을 철저히 세우도록 내달리고있다.

배천군의 인군들과 근로자들이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세우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과 근로자들은 부닥치는 예로와 난관을 과감히 헤쳐나간다는 강한 전부를 떨치고있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300여개소의 배수양수장들에 대해 배수기계의 수리정비를 완전히 끝냄으로써 언제든지 물을 흡수 있는 민단의 준비를 갖추어놓았다.

또한 배안방조제보수공사와 장하원정리공사를 비롯하여 장마철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도의 인군들과 근로자들은 이러한 성과에 만족을 모르고 6월말까지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완전히 끝낼 높은 목표를 내걸고 힘찬 전부를 떨치고있다.

시, 군들에서 애써 기울 한포기의 곡식도 피해를 입지 않게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들을 철저히 세우도록 내달리고있다.

배천군의 인군들과 근로자들이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세우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이 떨쳐나 분배를 보이고있다. 군에서는 강로, 공성현농농장에 새로 건설한 양수장들의 500여m의 물길보수와 화선식정리공사에서 8개소의 배수공사를 6월말까지 무조건 끝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역량을 집중하고있다. 좋은 기가 쉼 없이 뛰노는 전투장비에서는 대상을 위용창조로 부르는 화선식정지사업이 힘있게 벌어지는 가운데 편일 혁신이 창조되었다. 인군들과 근로자들은 계획된 물길보수를 18일동안에 끝냄으로써 180여점의 눈을 안전하게 보호할수 있게 대책을 철저히 세워놓았다. 또한 수심 1의 세멘트를 자체로 마련하여 저수지의 취수구, 부양이전제공사와 160여m의 정석공사를 본태있게 진행하고있다.

신원군을 비롯한 다른 군들에서도 혁신의 불길이 새겨져 타고르고있다.

신원군에서는 지하회동농장의 하천정리를 용출농장에 끝낼 목표를 세우고 힘찬 전부를

벌였다. 군인군들의 민중없는 조직사업과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의하여 열출농장에 1만여m²의 하천바닥을 파내고 정석공사를 진행하여 4천여m의 하천을 정비하였다. 그 기세로 인군들과 근로자들은 장마철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전투에서 편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용천군에서는 수많은 목재를 자체로 해결하여 저수수를 계속하고 23개의 배수문들을 배안방조제에 설치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있었다.

삼원군에서는 군인의 공방, 기업소들을 비롯한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 1000여m²의 하천바닥을 파내고 2천여m²의 정석보수공사를 힘있게 내밀어 읍지구의 하천정리를 8일동안에 해체하고 그 기세로 장마철피해막이전투를 적극 벌이고있다.

강령군, 안악군, 청담군을 비롯한 도의 다른 군들에서도 한포기의 곡식도 피해를 입지 않게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수호전의 철마는 만리마기수들을 부른다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새형의 80마력트락포트를 만들어낸 금성트락포트공장 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을 놓고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만민을 격동시키고있다.

지난 5월 12일 어머니당대회에 드리는 총정의 로력적성분포 제작한 기계설비전시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00%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새형의 80마력트락포트를 보시며 미남자처럼 잘 생겼다고, 정말 멋있다고, 사회주의수호전의 철마라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철마!

70일전투의 불길속에서 우리 로동계급이 한달 남짓한 기간에 만들어낸 새형의 트락포트는 사회주의수호전의 철마라는 이 고귀한 사투리를 더불어 그 탄생이 거저는 력사적미가 부각되었다.

첫 《철마》 트락포트의 탄생으로 위대한 철마시대가 열렸다면 새형의 트락포트의 탄생은 오늘의 만리마시대 인간들의 심금을 울리고있다.

최악의 조건에서

지난 5월 1일, 금성트락포트공장 종업원들은 70일전투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올리고있다.

자기 단위의 명예를 건 선수들은 기를 쓰고 내달리고 용원자들은 또 그들대로의 승벽심으로 와—와— 경기장이 떠나갈듯 소리를 지르고있다.

그러면 경기장이 물로 뿌르듯 삼시에 조용해졌다. 공장주대로 로동로 동음을 울리며 불어오는 현대의 트락포트가 있었다.

그때 우리는 지금 민주혁명요? 제2차대전 전까지의 공작로동계급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지성을 기울여 온 창조물이었다.

마치 산뜻한 옷을 차려입은듯 새까만 색으로 도장을 하고 시운전을 위해 나타난 트락포트를 보자 방금전까지 승부를 겨루느라 여념이 없던 종업원들 모두가 약속이나 헌정처럼 트락포트를 향해 달려갔다.

경기는 중단되었다. 심장이 뛰고 피가 흐르는 생명의기처럼도 한듯, 오해등안 터져 있던 살벌을 만나기라도 한듯 트락포트를 부르고 애무하는 종업원들의 얼굴마다에는 뜨거움이 어려있었다.

그중에서도 남다른 격정에 휩싸인것은 설계원들이었다.

안타고 고집이 센 노력이 이 창조물에 깃들었고 완성의 이 시각을 얼마나 애로고대했는지 그들이여었다.

설계원들의 흐려진 눈앞으로 설계전투의 격렬한 나날이 영화처럼 펼쳐 보였다.

실로 투쟁없는 전투였다.

사실 새 트락포트설계가 처음 진행될 때 트락포트설계연구소 설계원들의 마음은 대단히 무거웠다.

경분모양의 질이 아니라 개발창조의 초창기를 헤쳐야 한 개척자의 입구가 바로 이들의 어깨에 지워져있었다.

차량이나 아닌 무름식트락포트설계, 그것이 단순한 일이었는가.

완전유압조향장치, 자동인양장치, 동기화된 변속기, 습식제동기, 유선형카바를 장비한 운전실...

기술진보와 새 제품개발의 순차와 단계를 모두 뛰어넘어 단번에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되고 있다고 하는 트락포트설계의 기술적성능을 갖 갖춘 새 트락포트를 만들어 낼수 있는가.

이런 고 부속한것이 한두가지가 아닌 공작의 한 상황에서 너무 어찌는 큰 목표를 내걸지 않았는가.

설계원들은 흔히 설계작업에 앞서 새 창조물의 실현가능성부터 따진다. 실현불가능한 설계는 상상치워기를 받기마련이고 설계실 사고에 묻혀 밧을 보지 못하기때문이다.

시간은 긴박했고 파제는 엄정했다. 당 제7차대회까지는 앞으로 불과 몇달, 트락포트설계는 물론 제작까지도 끝내기에 너무도 짧은 날과 달들이었다.

최상의 요구수준, 깎간한 완성질, 불리한 제작조건과 어려운 모형제작실제... 이런것으로 하여 설계전투에 진입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경제문제를 확고한 주체적 입장에서 우리 인민의 자주성과 창조정신, 과학기술의 위력적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봉쇄책들을 짓부시고 경제강국건설에서 질적인 비약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주체혁명의 위대한 새시대에 태어난 조선의 트락포트는 최상의 조건에서도 최고의 목표를 내세우고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고야 마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자력자강의 정신이 넘은 고귀한 창조물이다.

70일전투의 자랑스러운 산아인 80마력트락포트는 우리 당의 자강혁명적의사상을 체현화한 당정책집행관들의 투사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주체공, 경제강국건설의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최고의 목표를!

앞서 이들은 한동안 주저하고 고민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들이 하려는 설계가 높은 공작의 현재조건에서는 시기상조라느니, 많은 부속품을 수입하지 않고서는 어렵다고는 일이러느니 하면서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도 있었다.

바로 그러할 때 이들을 찾아온 공장 당위원장 김진환동무가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리며 절절하게 호소했다.

《설계는 바로 이 심정으로 하는거요. 그게 우리가 지금 민주혁명요? 제2차대전 전까지의 공작로동계급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지성을 기울여 온 창조물이었다.》

《설계는 바로 이 심정으로 하는거요. 그게 우리가 지금 민주혁명요? 제2차대전 전까지의 공작로동계급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지성을 기울여 온 창조물이었다.》

《설계는 바로 이 심정으로 하는거요. 그게 우리가 지금 민주혁명요? 제2차대전 전까지의 공작로동계급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지성을 기울여 온 창조물이었다.》

《설계는 바로 이 심정으로 하는거요. 그게 우리가 지금 민주혁명요? 제2차대전 전까지의 공작로동계급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지성을 기울여 온 창조물이었다.》

《설계는 바로 이 심정으로 하는거요. 그게 우리가 지금 민주혁명요? 제2차대전 전까지의 공작로동계급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지성을 기울여 온 창조물이었다.》

《설계는 바로 이 심정으로 하는거요. 그게 우리가 지금 민주혁명요? 제2차대전 전까지의 공작로동계급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지성을 기울여 온 창조물이었다.》

《설계는 바로 이 심정으로 하는거요. 그게 우리가 지금 민주혁명요? 제2차대전 전까지의 공작로동계급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지성을 기울여 온 창조물이었다.》

《설계는 바로 이 심정으로 하는거요. 그게 우리가 지금 민주혁명요? 제2차대전 전까지의 공작로동계급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지성을 기울여 온 창조물이었다.》

《설계는 바로 이 심정으로 하는거요. 그게 우리가 지금 민주혁명요? 제2차대전 전까지의 공작로동계급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지성을 기울여 온 창조물이었다.》

《설계는 바로 이 심정으로 하는거요. 그게 우리가 지금 민주혁명요? 제2차대전 전까지의 공작로동계급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지성을 기울여 온 창조물이었다.》

《설계는 바로 이 심정으로 하는거요. 그게 우리가 지금 민주혁명요? 제2차대전 전까지의 공작로동계급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지성을 기울여 온 창조물이었다.》

《설계는 바로 이 심정으로 하는거요. 그게 우리가 지금 민주혁명요? 제2차대전 전까지의 공작로동계급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지성을 기울여 온 창조물이었다.》

《설계는 바로 이 심정으로 하는거요. 그게 우리가 지금 민주혁명요? 제2차대전 전까지의 공작로동계급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지성을 기울여 온 창조물이었다.》

《설계는 바로 이 심정으로 하는거요. 그게 우리가 지금 민주혁명요? 제2차대전 전까지의 공작로동계급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지성을 기울여 온 창조물이었다.》

《설계는 바로 이 심정으로 하는거요. 그게 우리가 지금 민주혁명요? 제2차대전 전까지의 공작로동계급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지성을 기울여 온 창조물이었다.》

《설계는 바로 이 심정으로 하는거요. 그게 우리가 지금 민주혁명요? 제2차대전 전까지의 공작로동계급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지성을 기울여 온 창조물이었다.》

《설계는 바로 이 심정으로 하는거요. 그게 우리가 지금 민주혁명요? 제2차대전 전까지의 공작로동계급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지성을 기울여 온 창조물이었다.》

《설계는 바로 이 심정으로 하는거요. 그게 우리가 지금 민주혁명요? 제2차대전 전까지의 공작로동계급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지성을 기울여 온 창조물이었다.》

《설계는 바로 이 심정으로 하는거요. 그게 우리가 지금 민주혁명요? 제2차대전 전까지의 공작로동계급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지성을 기울여 온 창조물이었다.》

《설계는 바로 이 심정으로 하는거요. 그게 우리가 지금 민주혁명요? 제2차대전 전까지의 공작로동계급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지성을 기울여 온 창조물이었다.》

《설계는 바로 이 심정으로 하는거요. 그게 우리가 지금 민주혁명요? 제2차대전 전까지의 공작로동계급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지성을 기울여 온 창조물이었다.》

《설계는 바로 이 심정으로 하는거요. 그게 우리가 지금 민주혁명요? 제2차대전 전까지의 공작로동계급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지성을 기울여 온 창조물이었다.》

얼상 일꾼들, 봉장일꾼들의 뜨거운 고구와 격려를 받으면서, 이해와 어린 자식들의 기대어린 눈길을 받으면서 설계원들은 필사의 각오를 다지었고 드디어 도면위에 힘차게 붓을 찍고 선을 그어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위치하고있는 곳이 크지 않은 설계실이라 사투리의 수호전의 또 하나의 전초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자각하였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트락포트설계는 이제 국주의자들과 적대세력들의 피어린 위협을 내세우고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고야 마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자력자강의 정신이 넘은 고귀한 창조물이다.

70일전투의 자랑스러운 산아인 80마력트락포트는 우리 당의 자강혁명적의사상을 체현화한 당정책집행관들의 투사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주체공, 경제강국건설의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70일전투의 자랑스러운 산아인 80마력트락포트는 우리 당의 자강혁명적의사상을 체현화한 당정책집행관들의 투사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주체공, 경제강국건설의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70일전투의 자랑스러운 산아인 80마력트락포트는 우리 당의 자강혁명적의사상을 체현화한 당정책집행관들의 투사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주체공, 경제강국건설의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70일전투의 자랑스러운 산아인 80마력트락포트는 우리 당의 자강혁명적의사상을 체현화한 당정책집행관들의 투사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주체공, 경제강국건설의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70일전투의 자랑스러운 산아인 80마력트락포트는 우리 당의 자강혁명적의사상을 체현화한 당정책집행관들의 투사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주체공, 경제강국건설의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70일전투의 자랑스러운 산아인 80마력트락포트는 우리 당의 자강혁명적의사상을 체현화한 당정책집행관들의 투사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주체공, 경제강국건설의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70일전투의 자랑스러운 산아인 80마력트락포트는 우리 당의 자강혁명적의사상을 체현화한 당정책집행관들의 투사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주체공, 경제강국건설의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70일전투의 자랑스러운 산아인 80마력트락포트는 우리 당의 자강혁명적의사상을 체현화한 당정책집행관들의 투사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주체공, 경제강국건설의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70일전투의 자랑스러운 산아인 80마력트락포트는 우리 당의 자강혁명적의사상을 체현화한 당정책집행관들의 투사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주체공, 경제강국건설의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70일전투의 자랑스러운 산아인 80마력트락포트는 우리 당의 자강혁명적의사상을 체현화한 당정책집행관들의 투사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주체공, 경제강국건설의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70일전투의 자랑스러운 산아인 80마력트락포트는 우리 당의 자강혁명적의사상을 체현화한 당정책집행관들의 투사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주체공, 경제강국건설의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70일전투의 자랑스러운 산아인 80마력트락포트는 우리 당의 자강혁명적의사상을 체현화한 당정책집행관들의 투사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주체공, 경제강국건설의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70일전투의 자랑스러운 산아인 80마력트락포트는 우리 당의 자강혁명적의사상을 체현화한 당정책집행관들의 투사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주체공, 경제강국건설의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70일전투의 자랑스러운 산아인 80마력트락포트는 우리 당의 자강혁명적의사상을 체현화한 당정책집행관들의 투사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주체공, 경제강국건설의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70일전투의 자랑스러운 산아인 80마력트락포트는 우리 당의 자강혁명적의사상을 체현화한 당정책집행관들의 투사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주체공, 경제강국건설의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70일전투의 자랑스러운 산아인 80마력트락포트는 우리 당의 자강혁명적의사상을 체현화한 당정책집행관들의 투사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주체공, 경제강국건설의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70일전투의 자랑스러운 산아인 80마력트락포트는 우리 당의 자강혁명적의사상을 체현화한 당정책집행관들의 투사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주체공, 경제강국건설의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70일전투의 자랑스러운 산아인 80마력트락포트는 우리 당의 자강혁명적의사상을 체현화한 당정책집행관들의 투사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주체공, 경제강국건설의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70일전투의 자랑스러운 산아인 80마력트락포트는 우리 당의 자강혁명적의사상을 체현화한 당정책집행관들의 투사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주체공, 경제강국건설의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70일전투의 자랑스러운 산아인 80마력트락포트는 우리 당의 자강혁명적의사상을 체현화한 당정책집행관들의 투사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주체공, 경제강국건설의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70일전투의 자랑스러운 산아인 80마력트락포트는 우리 당의 자강혁명적의사상을 체현화한 당정책집행관들의 투사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주체공, 경제강국건설의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70일전투의 자랑스러운 산아인 80마력트락포트는 우리 당의 자강혁명적의사상을 체현화한 당정책집행관들의 투사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주체공, 경제강국건설의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70일전투의 자랑스러운 산아인 80마력트락포트는 우리 당의 자강혁명적의사상을 체현화한 당정책집행관들의 투사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주체공, 경제강국건설의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70일전투의 자랑스러운 산아인 80마력트락포트는 우리 당의 자강혁명적의사상을 체현화한 당정책집행관들의 투사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주체공, 경제강국건설의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70일전투의 자랑스러운 산아인 80마력트락포트는 우리 당의 자강혁명적의사상을 체현화한 당정책집행관들의 투사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주체공, 경제강국건설의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70일전투의 자랑스러운 산아인 80마력트락포트는 우리 당의 자강혁명적의사상을 체현화한 당정책집행관들의 투사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주체공, 경제강국건설의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70일전투의 자랑스러운 산아인 80마력트락포트는 우리 당의 자강혁명적의사상을 체현화한 당정책집행관들의 투사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주체공, 경제강국건설의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크고 없으면 조국의 고지를 지키지 못하겠다고 하는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가슴에 수호탄을 품고 적막강산에 뛰어들고 지극 무기로 비행기와 맞서던 1950년대 화선용사들의 정신을 잊지 말자!

그때다. 이들이 만들어야 할 트락포트, 그것은 단순히 1만여개의 부속품들로 이루어진 기계설비가 아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도 이 나라 모든 일꾼들의 손길을 바라며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는 원수들, 바로 이 공장의 트락포트생산동맹도 몇기를 바라는 적들에게 호된 강타를 던져야 할 폭탄파도 같은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만드는 단 한개의 나사못이라도 수입이라는 무 글자가 찍힌다면 그것은 어머니 당에 드릴 조선의 트락포트가 아니다!

신념의 선택이었다. 자기들의 손으로 수입병에 젖어야 할 종지부, 바로 그날에 신념이 있었다. 공장의 로동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더러운 통퐁아비에 치명적타격을 안기는 비수를 맞은 심정으로 완전유압조향장치제작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따고 또 따고 있었다. 기계식방법이 아니면 할수 없었다면 치자의 연마를 우리 식의 전기회화적방법으로 해법으로써 높은 정밀도를 보장하고 가슴후련한 통창을 불렀다. 완전유압조향장치는 이렇게 태어났다.

조향각의 제작과 조향을 작각 종전의 20분의 1, 10분의 1로대폭 감소시킨 이차원적 성능은 트락포트만이 아니라 자동차, 배스, 승용자동차를 비롯하여 우리 나라 물건기계를개발하는데 적극 추동하는새로

사람들은 첫 《철마》 트락포트가 태어나던 그때를 기억하고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애쓰고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애쓰며 서로 도와주는 단결을 위하여 애쓰는 모든 일꾼들과 의열고 고모든것을 공동의 위업을 위해 헌신한 이치만은 아름다운 인간화원의 시대를!

철마는 바로 그 화원에서 날아올랐다. 오늘날 사회주의수호전의 철마가 태어난 땅에도 전설같은 인간사령의 아기가 무수히 수놓아져 새생애를 전지하고있는 푸른빛 초승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최악의 조건에서 새생애를 불러일으키 사회주의수호전의 철마를 만들어낸 금성트락포트공장 로동계급의 투쟁은 바로 1950년대 철마시대에 전제대비를 창조한 전통을 뜻하여 이어 너도나도 만리마기수가 되기 위한 집단적혁신의 거대한 불길속에서 벌어졌다.

점용할 난방이 막이던 겨울의 30여 일간 날이 어려운 시련의 고비들은 열었다. 거둬들이는 시간은 실체속에서 방금 조립하던 부속품들을 모두 분해하고 부속품을 뒤흔쳐 또다시 조립하기를 그쳤... 결국 그들만이 밤을 밝힌다는 아니었다.

새 트락포트를 만들어낸 시대의 주인공들중에는 열광하며 새생애를 위하여 투쟁을 일으켜 불려일으킨 투사들뿐이 없었다. 새형의 트락포트생산전투가 벌어질때는 소식이 잘하고 철마시대에 1974년의 70일전투를 추억하며 격동된 심정으로 달려나온 후추사, 로부성로인들을 비롯한 공장의 애환을 품은 열사들... 이치만은 우리는 이 로인들의 이름을 새 트락포트제작의 주인공들의 이름과 나란히 높게 되게 하는가.

이제는 년로하여 생각처럼 말을 잘 듣지 않는 육체, 치료를 받고도 말뚝을 잡는 자식들과 손자들, 공상일 말고도 마음싸야 할 집안의 일들... 그 모든것을 뛰어넘고 짐들목을 벗어 나 열광을 일깨우고 열광을, 밤낮이 쉼없는 정든 일터를 끝까지 지켜야 할 투사들이여! 70일전투기간 내내 헌신해온것을 이 세대가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완전유압조향장치의 시운전에서 또다시 실패하였던 지난 4월, 동중순 어느날 설계원들과 공장기술자, 로동자동맹에 나한 후추사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1958년에 우리 공장에서

《나는 1958년에 우리 공장에서

《나는 1958년에 우리 공장에서

《나는 1958년에 우리 공장에서

《나는 1958년에 우리 공장에서

《나는 1958년에 우리 공장에서

《나는 1958년에 우리 공장에서

《나는 1958년에 우리 공장에서

《나는 1958년에 우리 공장에서

《나는 1958년에 우리 공장에서

《나는 1958년에 우리 공장에서

《나는 1958년에 우리 공장에서

《나는 1958년에 우리 공장에서

《나는 1958년에 우리 공장에서

《나는 1958년에 우리 공장에서

《나는 1958년에 우리 공장에서

은 비정표를 마련한 하나의 혁명이었다. 습식제동기, 동기화된 변속기제작과정에 는 이런 일도 있었다.

원래 습식제동기의 제동마찰판은 분말합금방법으로 제작하였으므로 되어있었다. 그런데 공작에는 분말합금공정이 없었다. 그렇다고 어디에 손을 내밀수도 없었다. 동기화된 변속기의 동기회각장치도 마찬가지였다.

현존생산설비로 그것을 만든다는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고 새로운 생산공정을 확립하는데만도 적지 않은 기일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미 머릿속에서 수입이라는 말 자체를 지워버린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자그마한 부속품에도 자력자강의 위력한 사상을 새겨줄 아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비상한 창조정신은 분말합금방법이 아니라 동근소결합작방법으로 제동마찰판을 제작하여 기술적요구에 부합되는 마찰계수를 보장하는 기적을 낳았다.

현존생산설비들간의 협동작용으로 동기회각장치를 만드는 혁혁한 성과도 안아왔다. 혁명의 온갖 원수들이 당 제7차대회에 드림 자랑한 로력적성분포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는 조선로동계급의 발걸음을 멈춰세워보고자 마쳐내놓고있을 때 금성트락포트공장 로동계급은 적들의 봉쇄사슬을 무지하게 끊어버리는 또 하나의 철마, 무적의 땅크와도 같은 창조물을 보란듯이 내놓았다.

적들은 전멸할것이다. 피를 물고 육체를 는 제재와 봉쇄의 쇠사슬속에서도 무릅세 추켜세울라 총애전하는 이 나라 천만민국의 최강의 정신력일세!

적들은 전멸할것이다. 피를 물고 육체를 는 제재와 봉쇄의 쇠사슬속에서도 무릅세 추켜세울라 총애전하는 이 나라 천만민국의 최강의 정신력일세!

적들은 전멸할것이다. 피를 물고 육체를 는 제재와 봉쇄의 쇠사슬속에서도 무릅세 추켜세울라 총애전하는 이 나라 천만민국의 최강의 정신력일세!

적들은 전멸할것이다. 피를 물고 육체를 는 제재와 봉쇄의 쇠사슬속에서도 무릅세 추켜세울라 총애전하는 이 나라 천만민국의 최강의 정신력일세!

적들은 전멸할것이다. 피를 물고 육체를 는 제재와 봉쇄의 쇠사슬속에서도 무릅세 추켜세울라 총애전하는 이 나라 천만민국의 최강의 정신력일세!

적들은 전멸할것이다. 피를 물고 육체를 는 제재와 봉쇄의 쇠사슬속에서도 무릅세 추켜세울라 총애전하는 이 나라 천만민국의 최강의 정신력일세!

적들은 전멸할것이다. 피를 물고 육체를 는 제재와 봉쇄의 쇠사슬속에서도 무릅세 추켜세울라 총애전하는 이 나라 천만민국의 최강의 정신력일세!

적들은 전멸할것이다. 피를 물고 육체를 는 제재와 봉쇄의 쇠사슬속에서도 무릅세 추켜세울라 총애전하는 이 나라 천만민국의 최강의 정신력일세!

적들은 전멸할것이다. 피를 물고 육체를 는 제재와 봉쇄의 쇠사슬속에서도 무릅세 추켜세울라 총애전하는 이 나라 천만민국의 최강의 정신력일세!

적들은 전멸할것이다. 피를 물고 육체를 는 제재와 봉쇄의 쇠사슬속에서도 무릅세 추켜세울라 총애전하는 이 나라 천만민국의 최강의 정신력일세!

적들은 전멸할것이다. 피를 물고 육체를 는 제재와 봉쇄의 쇠사슬속에서도 무릅세 추켜세울라 총애전하는 이 나라 천만민국의 최강의 정신력일세!

적들은 전멸할것이다. 피를 물고 육체를 는 제재와 봉쇄의 쇠사슬속에서도 무릅세 추켜세울라 총애전하는 이 나라 천만민국의 최강의 정신력일세!

적들은 전멸할것이다. 피를 물고 육체를 는 제재와 봉쇄의 쇠사슬속에서도 무릅세 추켜세울라 총애전하는 이 나라 천만민국의 최강의 정신력일세!

적들은 전멸할것이다. 피를 물고 육체를 는 제재와 봉쇄의 쇠사슬속에서도 무릅세 추켜세울라 총애전하는 이 나라 천만민국의 최강의 정신력일세!

적들은 전멸할것이다. 피를 물고 육체를 는 제재와 봉쇄의 쇠사슬속에서도 무릅세 추켜세울라 총애전하는 이 나라 천만민국의 최강의 정신력일세!

적들은 전멸할것이다. 피를 물고 육체를 는 제재와 봉쇄의 쇠사슬속에서도 무릅세 추켜세울라 총애전하는 이 나라 천만민국의 최강의 정신력일세!

적들은 전멸할것이다. 피를 물고 육체를 는 제재와 봉쇄의 쇠사슬속에서도 무릅세 추켜세울라 총애전하는 이 나라 천만민국의 최강의 정신력일세!

적들은 전멸할것이다. 피를 물고 육체를 는 제재와 봉쇄의 쇠사슬속에서도 무릅세 추켜세울라 총애전하는 이 나라 천만민국의 최강의 정신력일세!

적들은 전멸할것이다. 피를 물고 육체를 는 제재와 봉쇄의 쇠사슬속에서도 무릅세 추켜세울라 총애전하는 이 나라 천만민국의 최강의 정신력일세!

적들은 전멸할것이다. 피를 물고 육체를 는 제재와 봉쇄의 쇠사슬속에서도 무릅세 추켜세울라 총애전하는 이 나라 천만민국의 최강의 정신력일세!

적들은 전멸할것이다. 피를 물고 육체를 는 제재와 봉쇄의 쇠사슬속에서도 무릅세 추켜세울라 총애전하는 이 나라 천만민국의 최강의 정신력일세!

적들은 전멸할것이다. 피를 물고 육체를 는 제재와 봉쇄의 쇠사슬속에서도 무릅세 추켜세울라 총애전하는 이 나라 천만민국의 최강의 정신력일세!

적들은 전멸할것이다. 피를 물고 육체를 는 제재와 봉쇄의 쇠사슬속에서도 무릅세 추켜세울라 총애전하는 이 나라 천만민국의 최강의 정신력일세!

적들은 전멸할것이다. 피를 물고 육체를 는 제재와 봉쇄의 쇠사슬속에서도 무릅세 추켜세울라 총애전하는 이 나라 천만민국의 최강의 정신력일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돐을 경축하여

위대한 당을 따라 영원히 한 길을 걸어갈 천만심장의 신념의 깃대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총정의 200일전후에서 만리마속도 창조를 세계에 지펴올리고 있는 우리 군대의 인민은 19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돐을 맞이하였다.

우리 당력사에 길이 빛날 뜻깊은 날을 전통적명절로 성대히 경축하는 온 나라 강산에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떨쳐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새로운 영웅적업적을 창조하는 열기가 뜨겁게 분출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조선로동당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영원한 수령이십니다.》** 뜻깊은 명절을 맞이하며 만수무단의 열매를 맺어 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대상을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찾았다.

각지에서 6월의 명절을 뜻깊게 경축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반으로 높이 모시고 그의 성스러운 당건설업적을 높이 받들고 천만심장의 신념과 의지를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을 우러러 삼가 인사물을 올렸다.

수도 평양의 구장들에서 중앙예술단체들의 경축공연들이 있었다.

로동봉구장에서 진행된 국립교향악단 음악회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무대에는 관현악 《장군님 백마 타고 달리신다》, 《애국가》, 관현악곡 《어머니의 사랑》, 바이올린 독주 《대륙을 이어 줄을 다 하라》를 비롯한 훌륭한 작품들이 나왔다.

주체의 당건설위업과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광스러운 혁명생애를 가슴깊이 돌이켜 보게 하는 장중하고도 서정적인 선율을 들으며 관람자들은 어머니장군님의 지대로운 태양의 모습이 어찌와 추추지는 걱정을 금치 못하였다.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가 공연되었다. 작곡가 두눈을 빼앗기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소리 높여 외치며 천수만을 진군케 하는 항일의 녀루사의 불굴의 모습은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율송의 신념과 의지를 뒤흔들었다.

봉화예술극장무대에는 국립민족예술단에서 새롭게 창작한 조한 무용극 《항구의 내 나라》가 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행노에 의하여 어머니장군님의 광성의 별처럼 인민의 곁과 리상이 꽃피는 내 조국의 푸른 현실을 민족의 고유한 장단과 송가락, 선율로 펼쳐보인 공연은 관람의 절찬을 받았다.

국립교향악단 오케스트라에서는 환상요율 《승전의 기쁨》, 《신기한 힘》, 기능요율 《어둠이 나옴》, 교향요율 《어항속의 조화》 등 항만적인 정서와 힘찬 리듬이 구원된 다양한 형식의 요율작들이 펼쳐져 명절을 맞이하는 인민들의 기쁨을 더해주었다.

국립연극극장에서는 연극 《혈액》공연이 있었다. 피끓는 심장들 당중앙위원회 피크에 이어놓고 자강력제일주의 기치 높이 증진의 충음을 높이 울린 상원로동제급의 투쟁기쁨을 감명깊게 형성한 공연은 관람자들이 하여금 자력자강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고 존엄이며 승리라는 절대불변의 철리를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였다.

위인장송의 송가, 로동당찬가들이 지방의 구장들에서도 높이 울려 퍼졌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행노에 의하여 어머니장군님의 광성의 별처럼 인민의 곁과 리상이 꽃피는 내 조국의 푸른 현실을 민족의 고유한 장단과 송가락, 선율로 펼쳐보인 공연은 관람의 절찬을 받았다.

국립교향악단 오케스트라에서는 환상요율 《승전의 기쁨》, 《신기한 힘》, 기능요율 《어둠이 나옴》, 교향요율 《어항속의 조화》 등 항만적인 정서와 힘찬 리듬이 구원된 다양한 형식의 요율작들이 펼쳐져 명절을 맞이하는 인민들의 기쁨을 더해주었다.

왕태복예술단 예술인들이 부른 《아다 민중가》, 《우리는 만리마속도》 등의 노래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기 위하여 만리마속도의 주인 공으로 사는 인민의 깊은 열정과 투쟁의 희열을 잘 보여주었다.

평양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등의 예술단체들 사상에 순실이 높은 공연무대들을 펼쳐서 도내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이 땅의 원대한 자식을 품어 안아 보살펴주는 위대한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참된 삶과 행복을 누려가는 크나큰 공지와 자부심을 깊이 새겨주었다.

6월의 명절을 뜻깊게 경축하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반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명도를 일관되게 충직하게 받들며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열의에 넘쳐 있었다.

국립교예단 종합교예공연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돐을 축하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모임이 19일 청진항에서 열렸다.

국립교예단 종합교예공연은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어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위업을 만방에 떨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당장전거념과 더불어 우리 당력사에 길이 빛날 뜻깊은 날을 맞이한 천만민족의 기쁨과 환희로 넘쳐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의 위원인 김정일동지, 최룡해동지를 비롯한 당,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과 당, 무력, 성, 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해방군 장병들, 평양시내 각급 기관, 공장, 기업소 일꾼들, 공로자들,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아 국립교예단에서 새로 창작

한 제막교예 《승리자들》, 《삼고 놀이》, 《건설자의 땅만》을 비롯한 작품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 조국의 존엄을 피로써 지킨 전세대 영웅선사들의 투쟁 모습과 부강조국건설에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우리 인민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반영한 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위대한 당의 부름따라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나기 위한 투쟁에 총열기, 총매진하고있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희열과 감탄을 안겨준 공연은 제막교예 《남은 자 더 놀이》로 끝났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한성이 어찌없는 주체의 높은 신념을 높이 위대하게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행노를 높이 받들고 어머니장군님의 지대로운 태양의 모습을 어찌와 추추지는 걱정을 금치 못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아 국립교예단에서 새로 창작



청진항에서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돐을 축하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모임이 19일 청진항에서 열렸다.

모임에 앞서 참가자들은 청진항에서 높이 모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모임장소로서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대상을 위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대상을 높이 모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선군혁명명도로 세국주의연합세력의 온갖 도전과 고압압박을 단호히 거부하시면서 조선을 불패의 정치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 세워주시겠다고 그들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존재하는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행노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남다른 애정을 가진 자들이 자라나고 있다고 하였다.

오늘 조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의를 드린다고 하였다. 그들은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하시어 조선로동당을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로, 항도적혁명으로 강화발전시키시겠다고 언급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선군혁명명도로 세국주의연합세력의 온갖 도전과 고압압박을 단호히 거부하시면서 조선을 불패의 정치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 세워주시겠다고 그들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존재하는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행노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남다른 애정을 가진 자들이 자라나고 있다고 하였다.

오늘 조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은 학필하고 세련된 명도로 조선로동당을 강위력한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는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행노의 결과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높이 모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행노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남다른 애정을 가진 자들이 자라나고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존재하는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행노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남다른 애정을 가진 자들이 자라나고 있다고 하였다.

오늘 조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은 학필하고 세련된 명도로 조선로동당을 강위력한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는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행노의 결과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높이 모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행노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남다른 애정을 가진 자들이 자라나고 있다고 하였다.

오늘 조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은 학필하고 세련된 명도로 조선로동당을 강위력한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는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행노의 결과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오늘 조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은 학필하고 세련된 명도로 조선로동당을 강위력한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는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행노의 결과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오늘 조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은 학필하고 세련된 명도로 조선로동당을 강위력한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는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행노의 결과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오늘 조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은 학필하고 세련된 명도로 조선로동당을 강위력한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는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행노의 결과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오늘 조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은 학필하고 세련된 명도로 조선로동당을 강위력한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는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행노의 결과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오늘 조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은 학필하고 세련된 명도로 조선로동당을 강위력한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는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행노의 결과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오늘 조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학생들의 무도회 각지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돐을 축하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모임이 19일 수도 평양과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당장전거념, 평양체육관, 개신문광장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무도회장은 위대한 당이 펼쳐준 위대한 설계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동력전에서 새로운 영웅적업적을 창조하는 열의가 뜨겁게 분출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선의 영광은 노래선물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경축무도회가 시작되었다.》**

《봄빛입니다 햇빛입니다, 《인민의 나라》 등의 노래선물이 울려 퍼지는 참가자들은 혁명명도의 전진기 향년들을 진주보석처럼 아끼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청년전위들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며 총정의 200일전후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될 열혈청춘들의 신념의 불꽃인양 《승천하는 발들자 우리 당을》, 《승리는 대륙을 이끄는 힘찬 노래를》, 《승리는 대륙을 이끄는 힘찬 노래를》, 《승리는 대륙을 이끄는 힘찬 노래를》 등 다채로운 작품들이 울려 퍼졌다.

전체 무도회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만대하여 길이 빛내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무대에 굳게 굳혀 당 제7차대회가 펼쳐진 사회주의위업완성의 웅대한 설계도를 실현하기 위한 총동력전, 총동력전에서 백두산전진강국의 위용과 기상을 만방에 떨쳐 줄 불타는 열의를 보여주었다.

이날 각 도소재지들에서도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가 있었다.

《봄빛입니다 햇빛입니다, 《인민의 나라》 등의 노래선물이 울려 퍼지는 참가자들은 혁명명도의 전진기 향년들을 진주보석처럼 아끼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청년전위들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며 총정의 200일전후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될 열혈청춘들의 신념의 불꽃인양 《승천하는 발들자 우리 당을》, 《승리는 대륙을 이끄는 힘찬 노래를》, 《승리는 대륙을 이끄는 힘찬 노래를》, 《승리는 대륙을 이끄는 힘찬 노래를》 등 다채로운 작품들이 울려 퍼졌다.

전체 무도회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만대하여 길이 빛내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무대에 굳게 굳혀 당 제7차대회가 펼쳐진 사회주의위업완성의 웅대한 설계도를 실현하기 위한 총동력전, 총동력전에서 백두산전진강국의 위용과 기상을 만방에 떨쳐 줄 불타는 열의를 보여주었다.

이날 각 도소재지들에서도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가 있었다.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돐을 축하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모임이 19일 당장전거념광장에서 진행되었다.

공연무대에는 소합창 《영광 드립다 조선로동당이어》, 《당은 장군님의 품》, 녀성독창과 방창 《어머니당이어》, 녀성독창 《우리 당을》, 《승리는 대륙을 이끄는 힘찬 노래를》, 《승리는 대륙을 이끄는 힘찬 노래를》, 《승리는 대륙을 이끄는 힘찬 노래를》 등 다채로운 작품들이 울려 퍼졌다.

출연자들은 전체적인 사상리론과 탁월한 명도로 우리 당을 영광스런 길로 이끌었던 김정일동지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수행의 강위력한 항도적혁명으로 강화발전시키시어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위업을 만방에 떨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당장전거념과 더불어 우리 당력사에 길이 빛날 뜻깊은 날을 맞이한 천만민족의 기쁨과 환희로 넘쳐 있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총정의 200일전후에서 만리마속도 창조를 세계에 지펴올리고 있는 우리 군대의 인민은 19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돐을 축하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모임이 19일 청진항에서 열렸다.

모임에 앞서 참가자들은 청진항에서 높이 모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모임장소로서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대상을 위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대상을 높이 모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선군혁명명도로 세국주의연합세력의 온갖 도전과 고압압박을 단호히 거부하시면서 조선을 불패의 정치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 세워주시겠다고 그들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존재하는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행노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남다른 애정을 가진 자들이 자라나고 있다고 하였다.

오늘 조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은 학필하고 세련된 명도로 조선로동당을 강위력한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는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행노의 결과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오늘 조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은 학필하고 세련된 명도로 조선로동당을 강위력한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는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행노의 결과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오늘 조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은 학필하고 세련된 명도로 조선로동당을 강위력한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는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행노의 결과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오늘 조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은 학필하고 세련된 명도로 조선로동당을 강위력한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는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행노의 결과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오늘 조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은 학필하고 세련된 명도로 조선로동당을 강위력한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는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행노의 결과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오늘 조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은 학필하고 세련된 명도로 조선로동당을 강위력한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는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행노의 결과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오늘 조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은 학필하고 세련된 명도로 조선로동당을 강위력한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는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행노의 결과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오늘 조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돐을 축하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모임이 19일 청진항에서 열렸다.

모임에 앞서 참가자들은 청진항에서 높이 모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모임장소로서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대상을 위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대상을 높이 모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선군혁명명도로 세국주의연합세력의 온갖 도전과 고압압박을 단호히 거부하시면서 조선을 불패의 정치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 세워주시겠다고 그들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존재하는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행노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남다른 애정을 가진 자들이 자라나고 있다고 하였다.

오늘 조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은 학필하고 세련된 명도로 조선로동당을 강위력한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는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행노의 결과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오늘 조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은 학필하고 세련된 명도로 조선로동당을 강위력한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는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행노의 결과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오늘 조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은 학필하고 세련된 명도로 조선로동당을 강위력한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는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행노의 결과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오늘 조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은 학필하고 세련된 명도로 조선로동당을 강위력한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는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행노의 결과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오늘 조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은 학필하고 세련된 명도로 조선로동당을 강위력한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는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행노의 결과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오늘 조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은 학필하고 세련된 명도로 조선로동당을 강위력한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는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행노의 결과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오늘 조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은 학필하고 세련된 명도로 조선로동당을 강위력한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는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행노의 결과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오늘 조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은 학필하고 세련된 명도로 조선로동당을 강위력한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는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행노의 결과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오늘 조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은 학필하고 세련된 명도로 조선로동당을 강위력한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는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행노의 결과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동포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무단의 열매를 맺어 오신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9일 최유일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

단원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원들은 불멸주의의 항배로 조국을 바치시어 민족번영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었으며 흥련의 강화발전이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정세위원들의 혁명생애를 가슴깊이 돌이켜 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아 발을 전진하고 인사를 드렸다. **《조선중앙통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한편 한편의 서정시와 가사는 길지 않다. 하지만 거기에 바쳐진 작가들의 열정과 헌신이 아닌 심장 속의 울림이 한자 새겨진다. 하지만 작가들은 서둘러 못 들지 않았다.

당시 준 파업을 세기일에 거이 이 편할 의지를 안고 날아났다. 기적은 창조하는 건설자의 가슴속에서 파연 그 무엇이 없고 있는가보다 깊이 체험하기 위해 그들은 흠뻑이 내리는 건설자의 여막을 온종일 밟고 또 밟았다. 그날 이쪽 지휘부의 일꾼들은 한편 한편의 기사창작을 위해 바쳐가는 도약가들의 남모르는 수고에 대해 고고사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어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인제인이 국가과학원 생물공학원에서는 찾아가는 작가들과 마주 앉아 된 연구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작가들이 이룩해 문헌에 찾아와 파학연구성과와 탐구의 나날이 있는 가지가지를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하고있었기에문헌이었다. 일정한 사건이나 등장인물들의 성격발전과정을 그리며 그들은 흠뻑이 내리는 건설자의 여막을 온종일 밟고 또 밟았다. 그날 이쪽 지휘부의 일꾼들은 한편 한편의 기사창작을 위해 바쳐가는 도약가들의 남모르는 수고에 대해 고고사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어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인제인이 국가과학원 생물공학원에서는 찾아가는 작가들과 마주 앉아 된 연구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작가들이 이룩해 문헌에 찾아와 파학연구성과와 탐구의 나날이 있는 가지가지를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하고있었기에문헌이었다. 일정한 사건이나 등장인물들의 성격발전과정을 그리며 그들은 흠뻑이 내리는 건설자의 여막을 온종일 밟고 또 밟았다. 그날 이쪽 지휘부의 일꾼들은 한편 한편의 기사창작을 위해 바쳐가는 도약가들의 남모르는 수고에 대해 고고사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어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인제인이 국가과학원 생물공학원에서는 찾아가는 작가들과 마주 앉아 된 연구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작가들이 이룩해 문헌에 찾아와 파학연구성과와 탐구의 나날이 있는 가지가지를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하고있었기에문헌이었다. 일정한 사건이나 등장인물들의 성격발전과정을 그리며 그들은 흠뻑이 내리는 건설자의 여막을 온종일 밟고 또 밟았다. 그날 이쪽 지휘부의 일꾼들은 한편 한편의 기사창작을 위해 바쳐가는 도약가들의 남모르는 수고에 대해 고고사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어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인제인이 국가과학원 생물공학원에서는 찾아가는 작가들과 마주 앉아 된 연구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작가들이 이룩해 문헌에 찾아와 파학연구성과와 탐구의 나날이 있는 가지가지를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하고있었기에문헌이었다. 일정한 사건이나 등장인물들의 성격발전과정을 그리며 그들은 흠뻑이 내리는 건설자의 여막을 온종일 밟고 또 밟았다. 그날 이쪽 지휘부의 일꾼들은 한편 한편의 기사창작을 위해 바쳐가는 도약가들의 남모르는 수고에 대해 고고사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어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인제인이 국가과학원 생물공학원에서는 찾아가는 작가들과 마주 앉아 된 연구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작가들이 이룩해 문헌에 찾아와 파학연구성과와 탐구의 나날이 있는 가지가지를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하고있었기에문헌이었다. 일정한 사건이나 등장인물들의 성격발전과정을 그리며 그들은 흠뻑이 내리는 건설자의 여막을 온종일 밟고 또 밟았다. 그날 이쪽 지휘부의 일꾼들은 한편 한편의 기사창작을 위해 바쳐가는 도약가들의 남모르는 수고에 대해 고고사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한편 한편의 서정시와 가사는 길지 않다. 하지만 거기에 바쳐진 작가들의 열정과 헌신이 아닌 심장 속의 울림이 한자 새겨진다. 하지만 작가들은 서둘러 못 들지 않았다.

당시 준 파업을 세기일에 거이 이 편할 의지를 안고 날아났다. 기적은 창조하는 건설자의 가슴속에서 파연 그 무엇이 없고 있는가보다 깊이 체험하기 위해 그들은 흠뻑이 내리는 건설자의 여막을 온종일 밟고 또 밟았다. 그날 이쪽 지휘부의 일꾼들은 한편 한편의 기사창작을 위해 바쳐가는 도약가들의 남모르는 수고에 대해 고고사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어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인제인이 국가과학원 생물공학원에서는 찾아가는 작가들과 마주 앉아 된 연구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작가들이 이룩해 문헌에 찾아와 파학연구성과와 탐구의 나날이 있는 가지가지를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하고있었기에문헌이었다. 일정한 사건이나 등장인물들의 성격발전과정을 그리며 그들은 흠뻑이 내리는 건설자의 여막을 온종일 밟고 또 밟았다. 그날 이쪽 지휘부의 일꾼들은 한편 한편의 기사창작을 위해 바쳐가는 도약가들의 남모르는 수고에 대해 고고사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어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인제인이 국가과학원 생물공학원에서는 찾아가는 작가들과 마주 앉아 된 연구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작가들이 이룩해 문헌에 찾아와 파학연구성과와 탐구의 나날이 있는 가지가지를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하고있었기에문헌이었다. 일정한 사건이나 등장인물들의 성격발전과정을 그리며 그들은 흠뻑이 내리는 건설자의 여막을 온종일 밟고 또 밟았다. 그날 이쪽 지휘부의 일꾼들은 한편 한편의 기사창작을 위해 바쳐가는 도약가들의 남모르는 수고에 대해 고고사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어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인제인이 국가과학원 생물공학원에서는 찾아가는 작가들과 마주 앉아 된 연구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작가들이 이룩해 문헌에 찾아와 파학연구성과와 탐구의 나날이 있는 가지가지를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하고있었기에문헌이었다. 일정한 사건이나 등장인물들의 성격발전과정을 그리며 그들은 흠뻑이 내리는 건설자의 여막을 온종일 밟고 또 밟았다. 그날 이쪽 지휘부의 일꾼들은 한편 한편의 기사창작을 위해 바쳐가는 도약가들의 남모르는 수고에 대해 고고사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어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인제인이 국가과학원 생물공학원에서는 찾아가는 작가들과 마주 앉아 된 연구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작가들이 이룩해 문헌에 찾아와 파학연구성과와 탐구의 나날이 있는 가지가지를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하고있었기에문헌이었다. 일정한 사건이나 등장인물들의 성격발전과정을 그리며 그들은 흠뻑이 내리는 건설자의 여막을 온종일 밟고 또 밟았다. 그날 이쪽 지휘부의 일꾼들은 한편 한편의 기사창작을 위해 바쳐가는 도약가들의 남모르는 수고에 대해 고고사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어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인제인이 국가과학원 생물공학원에서는 찾아가는 작가들과 마주 앉아 된 연구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작가들이 이룩해 문헌에 찾아와 파학연구성과와 탐구의 나날이 있는 가지가지를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하고있었기에문헌이었다. 일정한 사건이나 등장인물들의 성격발전과정을 그리며 그들은 흠뻑이 내리는 건설자의 여막을 온종일 밟고 또 밟았다. 그날 이쪽 지휘부의 일꾼들은 한편 한편의 기사창작을 위해 바쳐가는 도약가들의 남모르는 수고에 대해 고고사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백수십건의 선진영농방법과 기술도입사업 적극 추진

농업과학원 에서

체육강국의 레일을 부르는 우리 식의 체육기자재생산기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체육기자재공장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훌륭한 체육기자재들을 생산하여 우리 체육인들과 인민들이 널리 리용하게 하여야 합니다.》

체육으로 흥하고 강대해지는 체육강국의 레일을 보여주는 속도도와 강고 금메달로 향할 주로를 달리는 우리 체육인들에게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는 정성어린 체육촌에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생겼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체육기자재공장을 찾으신어 체육강국건설을 위해 큰일을 해 주셨다고, 자랑거리가 또 하나 생겼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토록 만수무강한 공장, 모든 것이 마음에 든다고 높이 평가해주신 공장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 하는 생각으로 발원음도 가버리지 않는 우리의 휘체였었다.

현대적인 마감재들도 장식한 이색로운 건축형식이 꾸미고 있게 펼쳐진 전시장, 꾸러미 실베이는 나무들... 우리 체육인들의 금메달과 잇닿은 훈련장들이 공장을 중심으로 뻗어나간것 같은 정성어린

체육촌의 전경도 더없이 특색있었다.

함으로 공장은 더 이룰데 없는 명당지배에 자리잡고있었다. 그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는 공장안으로 발원음을 읊었다.

시었다는 지배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방금 만들어진 축구공이 다뤄지며 완성되는 과정을 자세히 관찰하였다.

이제 최후한 통령을 보게 되니 놀라지 말라며 지배인이 우리를 안내한 곳은 제품창고였다.

그러나 우리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다양한 종류의 볼들이 작지 않은 창고안에 천정에 닿을 정도로 그득히 쌓여있는 볼들은 그야말로 뽀사뽀사하고 달려 다녔던 볼들이 아니었다.

이것이 방금 생산한 축구공 인니까?

우리가 검사중에 있는 축구공을 가리키며 물었다.

《아닙니다. 여기에서 검사하게 되는 볼들은 생산되는 72시간이 지나 중앙합성고분자공의 검사과정을 거쳐 합제도가 적혀진 다음 그다음에 검사실로 선택된 볼들이니...》

공을 여러번 회전시키면서 메이저측정기로 라구가 아닌가를 측정하는 공구형도측정장치를 통과한 공이 다시 합성고분자공의 합제도를 검사장치를 거쳐 다음에 검사실로 들어온다는 후후후 체육업기가 온몸에 와닿는것만 같았다.

자랑거리제일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는 이곳 로동계급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체육기자재들이 계속 쌓이고있다는 이 희한한 풍경은 《대성산》상표와 함께 체육강국건설의 승리의 날을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하기에 이 최후한 통령을 보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토록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만족해하시었다는 아니겠는가.

합쳐 만들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또다시 놀라게 하였다.

우리의 힘과 기술로 국제적기준에 도달하는 질풍은 체육기자재들을 생산하기 위해 세워놓은 엄격한 품질관리체계가 마음에 들어서 그토록 만족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나래의 체육발전을 위해 바쳐 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심혈과 헌신의 세계를 다스릴 새겨놓으며 우리는 현대적인 품질관리를 정비하며 과학기술보급실과 검사장들을 생산하는 제단작업장, 유희로 꾸러진 문화관 등도 포함하였다.

전선의 용사들에게 탄약을 만들어 공급하는 심정으로 더 좋은 체육기자재들을 생산하겠다는 지배인의 결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체육강국건설시상을 앞장서 발붙여갈 공산로동계급의 심정의 맹세로 우리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우리는 전진외역에 부각된 《대성산》상표를 다시금 바라보며 확신하였다.

《대성산》상표가 우리 체육인들과 인민들이 즐겨찾고 사랑하며 자랑으로 되고 세계에 빛을 뿌리게 될 때 우리 나라는 체육으로 흥하고 체육으로 명성을 떨치며 강대해지는 체육강국의 위용을 넘김없이 떨치게 될것이라는것을.

명당 자리

체육촌의 여러 경기관들을 거쳐 테니스전당에 다다른 우리의 눈앞에 전당에 마추한 나지막한 아산기슭에 아름답고 정교하게 꾸러진 공장의 모습이 안겨주었다.

전당외역에 부각된 《대성산》상표인 보이드 평양체육기자재공장이란것이 대충 알렸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지배인 장시창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공장은 이미 있던 공장이 개건된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건설되었습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총속에 새로 태어난 공장의 역사를 크나큰 직접속에 되새겨보는 그의 이야기는 공장이 장립되던 수년전으로 거슬러올라왔다.

《우리 공장은 1959년 4월에 장립되었습디다. 당시 공적규모는 총건적이 수백m²였고 실비라고는 피대신날 1대, 프레스 2대, 연마기 3대를 비롯하여 크고작은 설비를 합하여 30대에 불과하였습디다.》

그는 계속하여 청보이나 이렇과 같은 단순한 운동기재생산으로 첫발을 댄 공장은 1987년에 보충장구제 시행중에 새로 건설되어 여러가지 체육기자재들을 생산하여왔다고 말하였다.

이미 있던 공장을 개건할수도 있었지만 선수들의 활무대가 펼쳐져있는 여기 명당지배에 새로 건설될 공장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빛해 전부터 수십차례의 개조작업을 주시고 형성안도 여러차례까지 지도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이고 세심한

명도의 손길을 되새겨보는 그의 목소리는 격정에 젖어있었다.

《이 나라의 형편이 어려운 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 공장을 건설할 필요성을 먼저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 사실이 고무되어 우리 공장 종업원들은 한사발같이 떨치나서 공장건설을 닦고있습디다.》

그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공장 건물에 새겨진 《자력자강》이라는 이곳 로동계급의 신념의 글말의 참뜻을 다시금 되새겨보았다.

지배인은 우리에게 《대성산》상표가 부각되어있는 건물안에 코르크, 리튬, 미용을 할수 있는 편의시설, 종합원시당, 합업원들의 자녀들을 위한 현대적인 레크리에이션을 꾸려주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이렇게 모든 조건이 훌륭하게 갖추어졌는데 왜 질풍은 체육기자재들이 쏟아져나오지 않나라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후식리에 이르렀다.

이같은 후식리를 중심으로 4개의 면으로 둘러싸인 건물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돌아오신 생상구역, 교양구역, 생활구역이 명백히 구분되어있는 건물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달기와 평행한 도로의 손길이라면 리마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로 태어난 공장의 멋진 모습을 가슴속깊이 새겨두고싶어 우리는 다시금 구내를 둘러보았다.

희한한 풍경, 뽀사대

우리와 만난 한 녀성로동자는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여기에도 들리셨다고, 작업장에서 고무볼새가 얼마 나지 않았는지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시었다고 격정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그 어느 볼장을 돌아보시어도 우리 원수님의 마음속에는 로동자들의 건강문제가 첫자리에 놓여있다는 생각이 후두위치는 마음 안고 우리는 내리작업장으로 들어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영랑의 그날 《대성산》상표를 단 제품들을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는 우리에게 그는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영랑의 그날 《대성산》상표를 단 제품들의 집은 세계적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제품들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고 그 수업을 올려줘야 한다고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였습디다.》

그의 말을 들은 우리의 가슴은 울었다.

우리가 믿은 체육기자재는 마땅히 세계와 겨룰만큼 훌륭한것이어야 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과 우리 체육촌들과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체육기자재들을 안겨주고싶어하시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를 다시금 새겨보게 하는 제품건설의실이었다.

전립된 제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호기심을 안고 우리는 공판되는 작업의 첫 공정인 로라작업장으로 향하였다.

공판대를 비롯한 고무제품을 생산하는 작업장의 정장이 유리벽면을 통해 훤히 들여다보였다. 작업장에 들어섰을 때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생고무는 다루는 작업장이어서 고무새가 세게 날것이라는 예상이 뒤집혔던것이였다. 여러곳에 배풍장치와 제진장치가 설치된 것을 보시고야 우리는 그 원인을 알수 있었다.

점근색의 볼내피에 흰 실이 얼마나 오래도록 감겨져는지 순간에 흰색으로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면 꼭 볼들을 드리겠다는 그의 결의에서 우리는 세계적수준의 제품을 기여이 생산하려는 공장로동계급의 충정의 맹세를 읽으며 다음기 대일으로 다가갔다.

여러번 실감기한 축구공내타가 가득찰 발 임기를 거치고 나니 몇분만에 알뜰알뜰한 가죽볼들이 명시 있게 붙여진 축구공으로 완성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파장을 오래 보시며 만족해하시었다.

세계적수준에 도달한 제품들!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었다는 비단 이쁜단이 아니었다는것을 우리는 제품 검사실에 가보시고서야 알수 있었다.

세계적수준의 체육기자재들을 생산할수 있게 구체화했었다.

점근색의 볼내피에 흰 실이 얼마나 오래도록 감겨져는지 순간에 흰색으로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면 꼭 볼들을 드리겠다는 그의 결의에서 우리는 세계적수준의 제품을 기여이 생산하려는 공장로동계급의 충정의 맹세를 읽으며 다음기 대일으로 다가갔다.

여러번 실감기한 축구공내타가 가득찰 발 임기를 거치고 나니 몇분만에 알뜰알뜰한 가죽볼들이 명시 있게 붙여진 축구공으로 완성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파장을 오래 보시며 만족해하시었다.

국제적기준에 도달한 제품들!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었다는 비단 이쁜단이 아니었다는것을 우리는 제품 검사실에 가보시고서야 알수 있었다.

세계적수준의 체육기자재들을 생산할수 있게 구체화했었다.

점근색의 볼내피에 흰 실이 얼마나 오래도록 감겨져는지 순간에 흰색으로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면 꼭 볼들을 드리겠다는 그의 결의에서 우리는 세계적수준의 제품을 기여이 생산하려는 공장로동계급의 충정의 맹세를 읽으며 다음기 대일으로 다가갔다.

여러번 실감기한 축구공내타가 가득찰 발 임기를 거치고 나니 몇분만에 알뜰알뜰한 가죽볼들이 명시 있게 붙여진 축구공으로 완성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파장을 오래 보시며 만족해하시었다.

국제적기준에 도달한 제품들!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었다는 비단 이쁜단이 아니었다는것을 우리는 제품 검사실에 가보시고서야 알수 있었다.

세계적수준의 체육기자재들을 생산할수 있게 구체화했었다.

점근색의 볼내피에 흰 실이 얼마나 오래도록 감겨져는지 순간에 흰색으로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면 꼭 볼들을 드리겠다는 그의 결의에서 우리는 세계적수준의 제품을 기여이 생산하려는 공장로동계급의 충정의 맹세를 읽으며 다음기 대일으로 다가갔다.

여러번 실감기한 축구공내타가 가득찰 발 임기를 거치고 나니 몇분만에 알뜰알뜰한 가죽볼들이 명시 있게 붙여진 축구공으로 완성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파장을 오래 보시며 만족해하시었다.

국제적기준에 도달한 제품들!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었다는 비단 이쁜단이 아니었다는것을 우리는 제품 검사실에 가보시고서야 알수 있었다.

세계적수준의 체육기자재들을 생산할수 있게 구체화했었다.

점근색의 볼내피에 흰 실이 얼마나 오래도록 감겨져는지 순간에 흰색으로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면 꼭 볼들을 드리겠다는 그의 결의에서 우리는 세계적수준의 제품을 기여이 생산하려는 공장로동계급의 충정의 맹세를 읽으며 다음기 대일으로 다가갔다.

여러번 실감기한 축구공내타가 가득찰 발 임기를 거치고 나니 몇분만에 알뜰알뜰한 가죽볼들이 명시 있게 붙여진 축구공으로 완성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파장을 오래 보시며 만족해하시었다.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합경북도의 차량감독소 일군들과 감독원들

비 힘을 합쳐 제논으로 일터를 보란듯이 꾸리자.

일군의 이야기는 감독원들의 가슴을 울려주었고 모두가 기술 검사장과 2층짜리 철선건설에 열치나서게 하였다. 로력과 자재 등 부족해지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건설정도는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가 떨치나 짧은 기간에 기술검사장과 철선 건설을 마무리하고 주차장과 차체제작을 번듯하게 포장한 데 이미 속산까지도 임해하였다.

이 나날 감독소일군들과 감독원들, 로동자들의 서로 돕고 이끄는 절친우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였고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뜨겁게 체험하였다. 자기 힘에 대한 믿음도 커졌다. 감독소일군들은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자기들을 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을 자기자신을 위한 일로 간주하고 떨치나서면 못해낼 일 없다는 것을 증명할수있도록 제발은것이 큰 소득이었다.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합경북도의 차량감독소 일군들과 감독원들

비 힘을 합쳐 제논으로 일터를 보란듯이 꾸리자.

일군의 이야기는 감독원들의 가슴을 울려주었고 모두가 기술 검사장과 2층짜리 철선건설에 열치나서게 하였다. 로력과 자재 등 부족해지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건설정도는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가 떨치나 짧은 기간에 기술검사장과 철선 건설을 마무리하고 주차장과 차체제작을 번듯하게 포장한 데 이미 속산까지도 임해하였다.

이 나날 감독소일군들과 감독원들, 로동자들의 서로 돕고 이끄는 절친우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였고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뜨겁게 체험하였다. 자기 힘에 대한 믿음도 커졌다. 감독소일군들은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자기들을 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을 자기자신을 위한 일로 간주하고 떨치나서면 못해낼 일 없다는 것을 증명할수있도록 제발은것이 큰 소득이었다.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합경북도의 차량감독소 일군들과 감독원들

비 힘을 합쳐 제논으로 일터를 보란듯이 꾸리자.

일군의 이야기는 감독원들의 가슴을 울려주었고 모두가 기술 검사장과 2층짜리 철선건설에 열치나서게 하였다. 로력과 자재 등 부족해지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건설정도는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가 떨치나 짧은 기간에 기술검사장과 철선 건설을 마무리하고 주차장과 차체제작을 번듯하게 포장한 데 이미 속산까지도 임해하였다.

이 나날 감독소일군들과 감독원들, 로동자들의 서로 돕고 이끄는 절친우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였고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뜨겁게 체험하였다. 자기 힘에 대한 믿음도 커졌다. 감독소일군들은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자기들을 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을 자기자신을 위한 일로 간주하고 떨치나서면 못해낼 일 없다는 것을 증명할수있도록 제발은것이 큰 소득이었다.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합경북도의 차량감독소 일군들과 감독원들

비 힘을 합쳐 제논으로 일터를 보란듯이 꾸리자.

일군의 이야기는 감독원들의 가슴을 울려주었고 모두가 기술 검사장과 2층짜리 철선건설에 열치나서게 하였다. 로력과 자재 등 부족해지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건설정도는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가 떨치나 짧은 기간에 기술검사장과 철선 건설을 마무리하고 주차장과 차체제작을 번듯하게 포장한 데 이미 속산까지도 임해하였다.

이 나날 감독소일군들과 감독원들, 로동자들의 서로 돕고 이끄는 절친우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였고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뜨겁게 체험하였다. 자기 힘에 대한 믿음도 커졌다. 감독소일군들은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자기들을 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을 자기자신을 위한 일로 간주하고 떨치나서면 못해낼 일 없다는 것을 증명할수있도록 제발은것이 큰 소득이었다.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합경북도의 차량감독소 일군들과 감독원들

비 힘을 합쳐 제논으로 일터를 보란듯이 꾸리자.

일군의 이야기는 감독원들의 가슴을 울려주었고 모두가 기술 검사장과 2층짜리 철선건설에 열치나서게 하였다. 로력과 자재 등 부족해지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건설정도는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가 떨치나 짧은 기간에 기술검사장과 철선 건설을 마무리하고 주차장과 차체제작을 번듯하게 포장한 데 이미 속산까지도 임해하였다.

이 나날 감독소일군들과 감독원들, 로동자들의 서로 돕고 이끄는 절친우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였고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뜨겁게 체험하였다. 자기 힘에 대한 믿음도 커졌다. 감독소일군들은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자기들을 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을 자기자신을 위한 일로 간주하고 떨치나서면 못해낼 일 없다는 것을 증명할수있도록 제발은것이 큰 소득이었다.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합경북도의 차량감독소 일군들과 감독원들

비 힘을 합쳐 제논으로 일터를 보란듯이 꾸리자.

일군의 이야기는 감독원들의 가슴을 울려주었고 모두가 기술 검사장과 2층짜리 철선건설에 열치나서게 하였다. 로력과 자재 등 부족해지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건설정도는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가 떨치나 짧은 기간에 기술검사장과 철선 건설을 마무리하고 주차장과 차체제작을 번듯하게 포장한 데 이미 속산까지도 임해하였다.

이 나날 감독소일군들과 감독원들, 로동자들의 서로 돕고 이끄는 절친우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였고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뜨겁게 체험하였다. 자기 힘에 대한 믿음도 커졌다. 감독소일군들은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자기들을 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을 자기자신을 위한 일로 간주하고 떨치나서면 못해낼 일 없다는 것을 증명할수있도록 제발은것이 큰 소득이었다.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합경북도의 차량감독소 일군들과 감독원들

비 힘을 합쳐 제논으로 일터를 보란듯이 꾸리자.

일군의 이야기는 감독원들의 가슴을 울려주었고 모두가 기술 검사장과 2층짜리 철선건설에 열치나서게 하였다. 로력과 자재 등 부족해지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건설정도는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가 떨치나 짧은 기간에 기술검사장과 철선 건설을 마무리하고 주차장과 차체제작을 번듯하게 포장한 데 이미 속산까지도 임해하였다.

이 나날 감독소일군들과 감독원들, 로동자들의 서로 돕고 이끄는 절친우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였고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뜨겁게 체험하였다. 자기 힘에 대한 믿음도 커졌다. 감독소일군들은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자기들을 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을 자기자신을 위한 일로 간주하고 떨치나서면 못해낼 일 없다는 것을 증명할수있도록 제발은것이 큰 소득이었다.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합경북도의 차량감독소 일군들과 감독원들

비 힘을 합쳐 제논으로 일터를 보란듯이 꾸리자.

일군의 이야기는 감독원들의 가슴을 울려주었고 모두가 기술 검사장과 2층짜리 철선건설에 열치나서게 하였다. 로력과 자재 등 부족해지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건설정도는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가 떨치나 짧은 기간에 기술검사장과 철선 건설을 마무리하고 주차장과 차체제작을 번듯하게 포장한 데 이미 속산까지도 임해하였다.

이 나날 감독소일군들과 감독원들, 로동자들의 서로 돕고 이끄는 절친우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였고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뜨겁게 체험하였다. 자기 힘에 대한 믿음도 커졌다. 감독소일군들은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자기들을 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을 자기자신을 위한 일로 간주하고 떨치나서면 못해낼 일 없다는 것을 증명할수있도록 제발은것이 큰 소득이었다.

그들이 다시금 새겨안은 진리

합충농업대학 박사원 원장 임흥순동무와 경영학부 교원 백꽃분동무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남새는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금치는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다.

영양가 높은 시금치는 단백질, 당질, 지방, 비리민 등이 풍부하며 들어있을뿐 아니라 그로리는 달콤하면서도 구수한 맛을 내는것으로 하여 어느 가정에서나 부식물로 널리 리용한다.

그러한 남새이지만 우량종종의 시금치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고심하던 노력을 기울인 육종가들에게 있어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하지만 한평생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하여 그러럽 마음으로 일해온 장군님께서는 시금치육종가들의 남모르는 수고를 헤아려주시었다.

주제 100(2011)년 12월, 새로 건설된 함흥남새전립농장 온실분장을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시금치육종가들을 표해하시고 그 육종가들을 칭찬해주시었다.

그들이 바로 함흥농업대학 박사원 원장 임흥순, 경영학

합충농업대학 박사원 원장 임흥순동무와 경영학부 교원 백꽃분동무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남새는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금치는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다.

영양가 높은 시금치는 단백질, 당질, 지방, 비리민 등이 풍부하며 들어있을뿐 아니라 그로리는 달콤하면서도 구수한 맛을 내는것으로 하여 어느 가정에서나 부식물로 널리 리용한다.

그러한 남새이지만 우량종종의 시금치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고심하던 노력을 기울인 육종가들에게 있어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하지만 한평생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하여 그러럽 마음으로 일해온 장군님께서는 시금치육종가들의 남모르는 수고를 헤아려주시었다.

주제 100(2011)년 12월, 새로 건설된 함흥남새전립농장 온실분장을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시금치육종가들을 표해하시고 그 육종가들을 칭찬해주시었다.

그들이 바로 함흥농업대학 박사원 원장 임흥순, 경영학

합충농업대학 박사원 원장 임흥순동무와 경영학부 교원 백꽃분동무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남새는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금치는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다.

영양가 높은 시금치는 단백질, 당질, 지방, 비리민 등이 풍부하며 들어있을뿐 아니라 그로리는 달콤하면서도 구수한 맛을 내는것으로 하여 어느 가정에서나 부식물로 널리 리용한다.

그러한 남새이지만 우량종종의 시금치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고심하던 노력을 기울인 육종가들에게 있어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하지만 한평생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하여 그러럽 마음으로 일해온 장군님께서는 시금치육종가들의 남모르는 수고를 헤아려주시었다.

주제 100(2011)년 12월, 새로 건설된 함흥남새전립농장 온실분장을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시금치육종가들을 표해하시고 그 육종가들을 칭찬해주시었다.

그들이 바로 함흥농업대학 박사원 원장 임흥순, 경영학

합충농업대학 박사원 원장 임흥순동무와 경영학부 교원 백꽃분동무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남새는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금치는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다.

영양가 높은 시금치는 단백질, 당질, 지방, 비리민 등이 풍부하며 들어있을뿐 아니라 그로리는 달콤하면서도 구수한 맛을 내는것으로 하여 어느 가정에서나 부식물로 널리 리용한다.

그러한 남새이지만 우량종종의 시금치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고심하던 노력을 기울인 육종가들에게 있어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하지만 한평생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하여 그러럽 마음으로 일해온 장군님께서는 시금치육종가들의 남모르는 수고를 헤아려주시었다.

주제 100(2011)년 12월, 새로 건설된 함흥남새전립농장 온실분장을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시금치육종가들을 표해하시고 그 육종가들을 칭찬해주시었다.

그들이 바로 함흥농업대학 박사원 원장 임흥순, 경영학

합충농업대학 박사원 원장 임흥순동무와 경영학부 교원 백꽃분동무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남새는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금치는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다.

영양가 높은 시금치는 단백질, 당질, 지방, 비리민 등이 풍부하며 들어있을뿐 아니라 그로리는 달콤하면서도 구수한 맛을 내는것으로 하여 어느 가정에서나 부식물로 널리 리용한다.

그러한 남새이지만 우량종종의 시금치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고심하던 노력을 기울인 육종가들에게 있어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하지만 한평생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하여 그러럽 마음으로 일해온 장군님께서는 시금치육종가들의 남모르는 수고를 헤아려주시었다.

주제 100(2011)년 12월, 새로 건설된 함흥남새전립농장 온실분장을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시금치육종가들을 표해하시고 그 육종가들을 칭찬해주시었다.

그들이 바로 함흥농업대학 박사원 원장 임흥순, 경영학

합충농업대학 박사원 원장 임흥순동무와 경영학부 교원 백꽃분동무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남새는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금치는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다.

영양가 높은 시금치는 단백질, 당질, 지방, 비리민 등이 풍부하며 들어있을뿐 아니라 그로리는 달콤하면서도 구수한 맛을 내는것으로 하여 어느 가정에서나 부식물로 널리 리용한다.

그러한 남새이지만 우량종종의 시금치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고심하던 노력을 기울인 육종가들에게 있어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하지만 한평생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하여 그러럽 마음으로 일해온 장군님께서는 시금치육종가들의 남모르는 수고를 헤아려주시었다.

주제 100(2011)년 12월, 새로 건설된 함흥남새전립농장 온실분장을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시금치육종가들을 표해하시고 그 육종가들을 칭찬해주시었다.

그들이 바로 함흥농업대학 박사원 원장 임흥순, 경영학

합충농업대학 박사원 원장 임흥순동무와 경영학부 교원 백꽃분동무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남새는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금치는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다.

영양가 높은 시금치는 단백질, 당질, 지방, 비리민 등이 풍부하며 들어있을뿐 아니라 그로리는 달콤하면서도 구수한 맛을 내는것으로 하여 어느 가정에서나 부식물로 널리 리용한다.

그러한 남새이지만 우량종종의 시금치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고심하던 노력을 기울인 육종가들에게 있어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하지만 한평생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하여 그러럽 마음으로 일해온 장군님께서는 시금치육종가들의 남모르는 수고를 헤아려주시었다.

주제 100(2011)년 12월, 새로 건설된 함흥남새전립농장 온실분장을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시금치육종가들을 표해하시고 그 육종가들을 칭찬해주시었다.

그들이 바로 함흥농업대학 박사원 원장 임흥순, 경영학

합충농업대학 박사원 원장 임흥순동무와 경영학부 교원 백꽃분동무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남새는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금치는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다.

영양가 높은 시금치는 단백질, 당질, 지방, 비리민 등이 풍부하며 들어있을뿐 아니라 그로리는 달콤하면서도 구수한 맛을 내는것으로 하여 어느 가정에서나 부식물로 널리 리용한다.

그러한 남새이지만 우량종종의 시금치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고심하던 노력을 기울인 육종가들에게 있어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하지만 한평생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하여 그러럽 마음으로 일해온 장군님께서는 시금치육종가들의 남모르는 수고를 헤아려주시었다.

주제 100(2011)년 12월, 새로 건설된 함흥남새전립농장 온실분장을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시금치육종가들을 표해하시고 그 육종가들을 칭찬해주시었다.

그들이 바로 함흥농업대학 박사원 원장 임흥순, 경영학

